

2010 탈!이성애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이는 성



전 시 퀴어의 움직이는 성

5월 26일(수) - 5월 28일(금)

학생회관 1층 고를샘 앞 천막

오후 12시~오후 5시

영화상영 프리헬드(Free Held)

27일(목) 늦은 6시 30분. 공B037

강 연 "퀴어를 중심으로 퀴어화 하는 자"; 규범이라는 환상

28일(금) 늦은 6시 30분. 연희관025

강사 : 루인(퀴어문화활동가)

경계를 울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speak-out) 제 22대 총학생회

전화 02)2123-3645

메일 speak-out@yonsei.ac.kr

홈페이지 www.yonsei.ac.kr/system

주최 : 2010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이는 성〉 기획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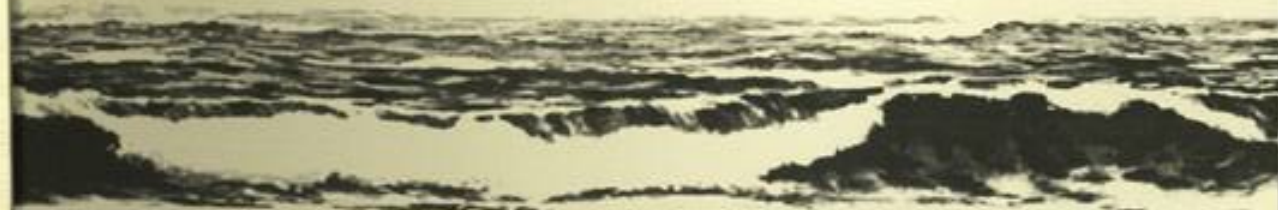
주관 : 22대 총학생회 경계를 울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speak-out)



2010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이는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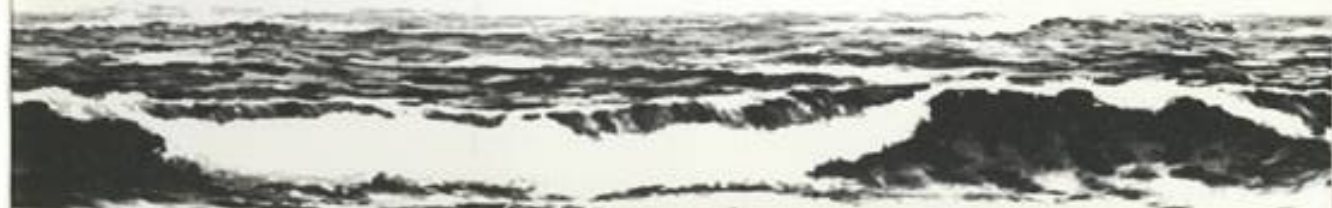


주최 : 2010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이는 성〉 기획단
주관 : 22대 동여학생회 경제활동부
좌모토론 이야기 (speak-out)



2010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이는 성



2010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이는 성〉

CONTENTS

■ 문화제 여는 글

- No.01 이미지글, 퀴어의 움직이는 성
No.02 친절한 안내서

■ 이성애주의 파헤쳐 보기

- No.03 정작 이성애에 대한 논의는 어디로?
No.04 과연 그럴까?
No.05 퀴어란 성의 정상성에 반대하는 것이다.
No.06 왜 여성주의자가 탈이성애중심주의를 말할까.
No.07 너는 이성애를 하고 가족을 꾸린다.
No.08 해석의 차이

■ 정체화, 끝나지 않는 이야기

- No.09 장례식장에서.
No.10 당신 주변의 퀴어들
No.11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No.12 안개 속에서 걸어나오기.
No.13 연애 권하는 세상
No.14 이 땅에서 양성애자로 살아가기.
No.15 호모포비아와 커밍아웃
No.16 어떤지 시니컬하고 꼬이는 날.
No.17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Yoshioka, Amano

'위어의 움직이는 성'

성(Gender, Sex, Sexuality)은 움직인다.

아무도 같은 삶을 살지 않듯이

개인의 정체성도 살면서 변화하고

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그러나 성별이분법과 젠더규범으로 뭉친 이성애중심주의가 나를 죄어온다.

스스럼없이,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진다.

모두의 성은 다르다. 그리고 모두의 성은 움직인다.

단조로운 이분법구조인 이성애중심주의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삶을 재단하고, 변형하고 박제한다.

이성애중심주의라는 아슬아슬한 선 위에서 온전히 서 있기 힘들어진다.

모두의 성은 움직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위어다.

그리하여,

위어의 움직이는 성은 우리 모두의 삶 위에 등등 떠 있을 것이다.

탈!이성애중심주의가 생소한 당신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이성애주의

heterosexism,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오로지 이성애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성애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정체성, 교제, 커뮤니티 등을 부정하며 모욕하고 낙인찍는 이데올로기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이성애 중심주의는 단순한 이성간의 교제만이 유일하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이성(혹은 동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남성우월중심의 태도 및 전통적인 성역할의 강화도 포함합니다. 유사개념인 호모포비아와 이성애주의를 비교하자면, 호모포비아가 개인 차원의 반동성애적인 태도 혹은 행위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반면 이성애주의는 사회적 차원의 이데올로기나 비이성애자를 억압하는 기제를 논하는 데 주로 쓰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애중심주의

이성애주의의 이데올로기 기능에서 비이성애를 주변화하고 타자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단어입니다.

이성애자

정신적, 육체적 끌림을 자신과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게 느끼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스트레이트(straight)라고도 부릅니다.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에서 이성애자가 스스로를 이성애자로서 정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가 재현하고 있는 이성애중심적 이성애자본과 자신의 경험을 분리시켜 바라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화에 대한 고민 없이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퀴어

퀴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묘한, 이상한, 괴상한'입니다.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 적극적, 긍정적 의미로 수용되었습니다. 퀴어는 동성애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LGBTQ 등 모든 성 소수자를 포괄하는 용어로 발달해왔는데 광범위하게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모든 정상성에 반대하는 시도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LGBTQ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에이섹슈얼Asexual, 인터섹슈얼Intersexual, 퀘스처닝Questioning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게이

게이 또는 동성애자는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리고 그러한 자신의 지향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동성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동성애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동성연애 혹은 동성연애자라는 말은 동성간의 성관계, 성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그 존재 자체를 축소한 말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레즈비언

게이라는 단어는 원래 여/남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에 국한되어 사용됩니다. 여성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로는 레즈비언이 있습니다. 레즈비언이란 여성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

을 갖고 자신을 여성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합니다.

바이섹슈얼

바이섹슈얼, 또는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의 구분이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갖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혹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은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는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만 transsexual은 sexual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보다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성을 나타내기 위해 더 넓은 개념으로 transgender를 사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 하는 경우는 'M TO F 트랜스섹슈얼'이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F TO M 트랜스섹슈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ale to Female transsexual)*

(Female to Male transsexual)**

에이섹슈얼

에이섹슈얼 혹은 무성애자는 성적 욕구가 없거나 다르거나, 성적욕구가 있으나 특정 대상을 향해 지속성을 갖지 않거나, 혹은 기존 논의의 성적지향에 관하지 않기 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터섹슈얼

인터섹슈얼 혹은 간성間性은 남녀 두 가지 특

성이 혼합되어 나타나거나 둘 다 나타나지 않거나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는 사람을 뜻합니다. 염색체나 유전자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남녀 성기가 같이 있는 경우는 양성구 유兩性具有라고 하며, 간성의 일부에 속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0명당 한명의 꼴로 나타나며 대체로 어린 나이에 주민등록을 위해 남녀 한성에 맞추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퀘스처닝

퀘스처닝은 LGBTQ 어떤 정의로도 자신을 정체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점으로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커밍아웃

coming out,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커밍아웃은 1차적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말하지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커밍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웃팅

outing, 성소수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성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수자라는 것이 큰 불이익이 되는 사회에서 아웃팅은 성소수자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삶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정작 이성애에 대한 논의는 어디로?

우리 문화제가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이 잡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지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아도 심지어 논문검색을 해보아도 '동성애의 기원이나 원인', '퀴어 운동의 역사' 등등 비 이성애에 대한 자료들은 많은데, 이상하게도 이성애에 관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비 이성애'라는 개념도 '이성애'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고민이나 의심을 해보지 못한 '정상성'에 의문과 고민이 생기게 되면 그 '정상성'이란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맥락에서 구성되어 왔는지 탐구하는 것이 순서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정상성' 자체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지 않는 것에 관해 '도대체 왜?'라는 물음표를 끊임없이 붙여가면서 원인이나 기원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것은 무슨 현상일까요.

동성애나 퀴어의 기원, 역사, 원인 등을 탐구하는 그 일련의 과정과 담론에서 비이성애는 대상/타자가 되어 버리기 일쑤입니다. 사실 비이성애의 원인이나 기원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비이성애정체성을 '이해' '인정' 혹은 '해결' 하기 위해서라는 대상화/타자화 하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상황이 이러하니 점점 논의에서 '정상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이성애'에 대한 고민과 의문들은 사라집니다.

비이성애정체성 자체가 탐구될 수 있을뿐더러 비이성애 정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권력이 당연히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있는 양, "비이성애정체성도 인정하느냐 마느냐"라는 논의만 남는 상황을 우리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그럼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진 이성애는 도대체 무엇?"이라는 고민은 사라지고, "이성애"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완전무결한 존재마냥 논의에서 벗어나 당연한 근간처럼 논의의 밑바닥에 깔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성애인가',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사실은 이 질문들이 사회의 정상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물무



anni belts

이성애는
이성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동성애는
동성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

유치원 아이들을 줄 세우면서 남녀 짝을 지어주고, 부모는 아이에게 이담에 커서 누구랑 결혼할 거냐는 말을 자연스레 하며, 꼬마아이들이 여자친구/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면 어른들은 으레 "어린것들이.. 허허" 하며 자연스럽게 웃고 지나간다. 어린이들은 아직 성에 관해 모르고, 몰라야 한다고 이 사회는 말하지만, 사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일상에서 이성애 담론을 접하지 않는 날이 있을까 싶다. 드라마나 만화에서부터 공간구성이나 국가제도에 이르기까지 이성애는 단순히 '성적 끌림'이나 '섹슈얼한 문제'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작동하는 생각과 행동의 기틀로 작용한다.

구분인 것 같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 이성애와 동성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비이성애자들은 스스로 정체화를 할 때,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스스로가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규범에 맞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규범을 거부하거나 타협을 하며 자신을 인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반대로 비이성애정체성과 같은 범주로서 비교되는 이성애정체성은 견고한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 가능한가? 이성애주의의 규범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위

한 동성애관련 사이트가 청소년 접근유해사이트 판정을 받은 것은(19금) '청소년시기가 혼란스러운 시기이니 만큼 외부 자극에 의해 정체성형성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요지의 이유에서다. 사회가 동성애라는 것을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이고 문란한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는 편견을 짊어낼 수 있는 지점이다. 동성애가 성애의 문제라서, 일정나이가 될 때까지 접해서는 안 되는 거라면, 이성애는 왜 그런 인식으로 판단하지 않는가? 막연히 생각하기에 이성애와 동성애는 성적 끌림이라는 면에서 동일한 범주이고,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단순한



hoto atsuko

에 견고하게 작동한다. 이 사회는 누군가 커밍아웃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을 이성애자로 간주하여 말하고, 관계를 설정한다. 당연히 이성애가 모든 사회규범과 인식의 기틀이 되어있으므로, "언제 비이성애자임을 알았는가?" "게기는 무엇인가?"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실로 가능해 지는 것이다. 너무나 견고한 이성애주의의 규범 속에서 게기나 고민시정이 없는 비이성애 정체성이 드러날 여지가 당초 없기 때문이다.



hota atsuko

위의 질문이 거꾸로 가능한지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면, 사람들은 어색함을 느끼거나 이런 일련의 질문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애초에 정체성의 다양성은 열려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굴이" 이성애주의의 규범에 부대끼거나 그 지점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 자신을 정체화 할 게기나 시점도 없이, 그저 사회의 규범대로 "정상성"에 소속되는 것이 소위 평범하다고 말해지는 이성애정체성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 같으므로 비이성애자를 어떻게 인정하고 배려해주어야 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단순히 이성애-비이성애를 단순 나열, 비교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성애자나 비이성애자의 정체화 과정은 확연히 다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며, 분리되어 단순 비교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비이성애정체성을 이성애정체성과 같은 분류마냥 '정상'의 규범에 포함시킬 건지에 대해 논의하기만 할 뿐, 정작 정상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성애이든 비이성애이든 이 두 개가 서로 명확히 분리되어 이 두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단지 정상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 일 뿐이다. 이성애라는 '정상성'은 결국 '정상성' 강화시키기 위해 비이성애라는 '비정상성'을 배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다. 결국 이성애나 비이성애 정체성에 관한 기반은 사실 똑같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이성애를 논하는 것은 비이성애라는 이성애에서 분리된 집단이 있어서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과 일상의 틀로서 기능하는 이성애주의에 의문을 던지고 그 '정상성'을 고민, 비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정상이데올로기에 스스로의 이야기를 재단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말하는 것에 있어 이 사회의 견고한 이성애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나의 비이성애성이고 퀴어인 것이다. 그래서 이 슬로건은 모두에게 유효하다 "We are queer!"

—울무

퀴어는 성의 정상성을 추구하는 혹은 성의 정상성을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시도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상성'은 끊임없는 기만의 연속이거나, 더 좁혀서 말하자면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을 규정하려고 드는 성에 관한 언어적 기만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이나 이 구분에 관한 규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허울쫄은 겉데기에 불과함을 밝히고자 한다.

퀴어란 성의 정상성에 반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남성의 몸이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술은 원하지 않는 이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MTF(Male to Female)라고 칭할 수 있는가? 또한 이 사람이 파트너의 성적 정체성을 알지 못하더라도 (섹슈얼한 관계를 포함하여)파트너의 조건으로 생물학적 남성의 몸 자체나 (파트너가 지니고 있는)남성성을 선호하며 이 사람은 페니스를 사용하여 성관계를 갖는 것을 선호한다. 이 사람은 이성애자인가? 동성애자인가?)

위에서 언급한 예시에서는 수많은 교란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확신을 내리기 어렵다.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을 어떤 범주 속에 애써 끼워 넣으려 하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허위적이다. 하지만 그 이분법적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은-그리고 '정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사실상 그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정상'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개인에게 '다수'로서 인정되는 정상의 범주에 속해있다'는 일종의 소속감과 그로부터의 안정감/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속감으로부터 비롯되는 안정감/안도감은 그 사람에게 다수의 위치에서 기인하는 권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권력은, 그 사람이 자각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부/외부에서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러한 외부적 작동의 예로는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 작동의 예로서는 자신의 내부에서 미묘하게 발현되는 크고 작은 욕망들을 선별하고 그것들을 억압하는 것을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작동되는 권력들은 생각보다 그 사람에게 달콤한 그 어떤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상의 범주 안에 있는 개인은 그 범주가 부여하는 권력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자각이나 성찰 없이 은연중에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즐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토록 달콤한 권력을 부여하는 실마리는 자기 자신이 정상이라는 범주에 속한다는 확신에서 나

1) 하지만 이 사례에서 이 사람을 끊임없이 생물학적 남성, 혹은 여성 등의 이분법적 언어로 규정하는 것 또한 극복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규정된 표현들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언어이며 따라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언급했을 뿐이다.

2)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數)적으로 많은 다수 또는 표준정규분포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평균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수를 칭한다.

온다. 하지만 이러한 '정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확실할까? 정말 이 세상에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 이 세상에 정상성을 담보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여 이 모든 정상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동안 '정상'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그 엄청난 '다수'가 비정상성이 되어버리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누구든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정상적이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정상성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 쏟는 노력과 혹은 범주에서 벗어남을 당할까봐 느끼는 불안이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평소에는 정장을 입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특정 행사에서는 정장을 입는다든가³⁾, 남성문화에서 인정받기 위해 혹은 살아남기 위해 술을 잘 마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많이 먹는다는, 친구들이 '박력을 요구하고 친밀감의 표시라며 인사로 욕을 하고' ⁴⁾, '딱 봐서 악해 보이는 녀석들은 단숨에 물리치되 나보다 강한 녀석과는 나중에 적이 되지 않기 위해 한 수레 위에 올라타야만 해. 단, 순해 보이는 여자들에겐 매너 좋은 오빠로 보이는 것(중략) 여자가 돈 쓰는 모습은 꼴쓸 짓이라고 녹슨 지갑을 꺼내며 내 친구는 얘기해' ⁵⁾라는 등의 노래가사라는 가 하는 것들 것 있을 것이다. '남성성'을 획득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들을 익숙하게 해 낼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많은 남성들이



'성공한 멋진 남성'의 범주에 들기 위해 쏟는 노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남성적 남성의 범주에 들지 못한 남성에게 가해지는 폭력⁶⁾을 또한 다반사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상'의 범주에 들어갔을 때 획득할 수 있는 권력 또한 이분법적 구분과 더불어 얼마나 허울 좋은 겉대기에 불과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 권력은 자신이 '정상'이므로 그렇지 않은 이들을 손쉽게 타자화 할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하는 정상성에 대한 확신을 깨고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 개개인을 '정상의 범주' 안에 넣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기만을 깨달아야 한다.⁷⁾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구분의 경계가 사실은 모호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그 경계를 드나들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구분이 그리고 그 권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작에 불과한 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써 정상이라는 개념을 흔들고 깨물고 더 나아가 개념 자체의 견고함을 헐겁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삼

3) 이런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여자의 욕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욕이 남성의 욕이라고 믿는 FTM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성 정장을 입어야 하는 것이 커다란 고통과 억압으로 다가올 수 있다.

4) Kebee, 소년을 위로해줘 official bootleg vol. 1, 2005

5) Kebee, 소년을 위로해줘 official bootleg vol. 1, 2005

6) 예를 들어, '시내자식이 그러면 못본다.' 라든가 '너 게이냐?' 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다.

7) 그 기만은 주로 통계를에서 나오는 것일 때가 많다.

왜 여성주의자가

탈이성애중심주의를 말할까

탈이성애중심주의가 '동성연애'를 말하는 동네?

탈이성애중심주의 공약을 이야기 했을 때 들었던 많은 이야기는 '왜 총여가 동성연애 인정 공약을 내었나. 동성연애 판이 될 것이다'는 것이었다. 위의 질문은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우선, 동성'연애'라는 표현, 둘째, '인정'이라는 표현, 셋째, 탈이성애중심주의가 곧바로 '동성연애 인정'으로 해석되는 상황 등이었다. 혹시 탈이성애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이 탈이성애중심주의가 아닌 '탈이성애'/'비이성애' 중심주의로 읽히는 것일까. 이성애만이 중심이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주변화 시키는 구조(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벗어나자고 말하는 것(탈! '이성애중심주의')이 이성애를 제외한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보자('탈이성애'/'비이성애' 중심주의)라고 해석된다면 본래의 문제제기 맥락이 완전히 삭제되고 도리어 반대의 주장이 된 것이니 이만 저만 곤란한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여학생이 레즈비언인 것은 아닌데 왜 여학생회가 레즈비언 이야기를 하느냐는 질문도 들은 적이 있다. 이성애만이 정상이고 이성애만이 보편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가 '정상', '보편일반'인 이성애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가하는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는 탈이성애중심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성애중심주의가 바로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그를 공고히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성애중심주의 - 연애와 결혼

사실 탈이성애중심주의의 핵심은 이성애중심주의다. 이성애중심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아무도 이성애중심주의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일까. 정말로 이성애중심주의는 너무나 당연해서 탈이성애중심주의를 말할 때 꼭꼭 숨어있는 것일까?



kazuko nomoto

그것은 대체 왜 당연한가?

여남이 사랑하는 것...이 이성애인가? 왜 여남만 사랑해야하는가? 대체 이성애중심주의가 공고해야하는 그 지점은 무엇인가. 이런저런 문답의 끝에 항상 가장 큰 마찰과 가장 큰 갈등이 보이는 곳은 결국 결혼과 가족의 문제로 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논란의 끝에서 여남만이 사랑해야하는 이유는 여남만이 근대 가족법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가족을 꾸릴 수 때문이다.

애당초 근대의 가족법은 여남의 결합만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꼭 여남이 사랑한다고 결혼을 하는 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연애와 결혼은 직결되지도 않는다. 또 제도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결혼이 아니어도 연애와 동거 등의 확장판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본주의는 자신의 시장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연애를 조장, 장려, '인정'하며 재현하고 있다. 이벤트성 연애가 사업적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이기 때문이다. 마치 기존 이성애중심의 결혼을 전제한 연애의 대안을 보여주는 양, 기존의 이성애중심의 연애 등에서 벗어난 비이성애 연애마저도 포괄할 수 있는 양, 새롭게 등장한 연애각본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의 기획일 뿐 공고한 이성애중심주의 결혼 앞에서 허무하게 흩어진다. 여전히 결혼이라는 귀결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 연애와 결혼이 다른 의미와 비중으로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10대 부모를 제외하고는 사회문화적으로 미혼보다 기혼이, 승인되는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 혜택을 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가족을 꾸린다고 해서 또 모두 같은 가족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은 아닌 사회다. 여남의 결합이 기본전제이되 그 이상을 요구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이성애중심주의의 또 다른 작동기제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 가족법 서설과 함께하여

이성애중심주의와 짝을 이루어 함께 작동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가 상정하고 있는 정상가족 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가족은 무언가 결여되어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말하는 정상가족은 가족 내 구성원들이 화목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등의 것과는 무관하게 어떤 구색을 갖추는 것에 더 초점이 가있다. 정상가족의 기본 틀로 여겨지는 4인 핵가족은 아빠, 엄마,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한다. 이러한 역할분담이 모호한 비혼 가정,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게이/레즈비언 부부의 가정, 무자녀 가정, 조부/모와 손주만 있는 가정, 10대부모 가정 등은 이미 실제 가구조사에서 1/4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여겨지고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완벽에서 결여되어 있는 가정으로 취급된다.

실제 사회의 변화나 실례와 상관없이, 정상가족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다른 모습의 가족들을 폄하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은 애당초 근대 자본주의의 사회가 정상가족을 기반으로 돌아가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가족법 서설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가족법 서설>

가족법의 핵심은 자녀의 출생과 양육의 보호,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의 적절한 구성, 가족 재산의 승계의 보장에 있다.

첫째, 가족법은 후세의 재생산에 관한 합리적 규율이다. 후세의 생산과 양육은 인류의 존속에 불가결하다. 자녀의 양육의 책임을 그 부모에게 맡기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강제된다. 한편 자연적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법적으로 정해지는 친자관계도 있을 수 있다.

둘째, 가족법은 남녀의 성욕의 합리적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 본능으로 행복의 한 원천이지만 동시에 그 불충족은 심각한 박탈을 의미한다. 때문에 성에 관한 필요와 이익은 적절하게 분포되고, 자유의사에 의해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만 한다.

셋째, 가족법은 사적재산의 승계에 관한 합리적 규율이다. 재산은 존속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다. 자연인의 생명이 다하면 그는 더 이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재산의 귀속에 불분명하게 된다. 여기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때문에 재산소유자의 사망시에 그 재산의 귀속을 정리롭게 그리고 일정한 규율에 따라 정해놓을 필요가 있게 된다.

후세의 재생산 문제나 양육의 부담은 가족이 책임질 수도 사회가 책임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비용이 막대하므로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사회는 그 비용을 가족이 담당할 것을, 가족법을 근거로 요구하고 있다. 결국, 앞서 말한 정상가족을 기반으로 돌아가도록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성되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사회가 가족으로, 다시 가족이 가족 구성원 개인에게로 비용 혹은 에너지를 전가시키는 구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는 말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임노동에 대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장 밖의 임노동이 아닌 다른 노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길 원했다. 가족에게 재생산의 문제나 부담 등을 전가했으므로 가족은 재생산을 반드시 책임져야했다. 때문에 가족은 반드시 여남의 결합이어야 했고 자녀를 낳아야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동의 개념이 탄생했는데 자녀가 충분히 일할 만한 임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돌봄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일정기간은 보호받아야한다는 아동이란 개념으로 누군가의 돌봄을 요구했다. 또한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내 임노동자가 리프레시 되기 위해선 아동보호개념의 돌봄 이외의 다른 돌봄이 필요했는데 이런 돌봄 노동에 대한 비용 역시 사회는 감당할 수 없었다(혹은 감당하기 싫었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가족 임금 개념과 성별 분업이란 이름으로 아버지에게는 가부장으로서 생계유지의 책임을 어머니에게는 가사노동과 양육의 책임을 떠안겼다.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비용전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며 자본주의의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족유닛을 활용하기 위해 혹은 유효하지 않은 가족 유닛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성애중심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폭력성

그래서 이러한 거대하고 웅장 위계적 구조가 뻗어온 문제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사람들에게 문제인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상관 없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기엔 쉽지 않은 것 같다. 분명 이성애중심주의의 최접전 지역은 결혼과 가정이 맞다. 우리는 앞으로 결혼할지도, 하지 않을지도-가정을 꾸릴지도, 꾸리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긴 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이란 것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 것은 아니다. 어쩌면 기존 몸담고 있던 가정에서 독립하거나 관계를 끊은 지가 오래여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접한 것은 어떤 형태든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성애중심주의를 말하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판치는 사회였다.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앞으로의 한 가능성일 수도 있는 결혼과 가정에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온 전반에 폭력을 가해왔다. 정상가족 틀에 갇히지 않는다면, 혹은 위장될 수 없다면 폭력은 시작된다. 예외 케이스가 아니라면 정상가족이란 틀을 벗어난 가족은 당장의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편견에 시달릴 수 있다. 이미 정상가족 틀에 갇히지 않는 가족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정상가족을 서술해대는 교과서 앞에서 괜한 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것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와 아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또한 몸담은 가정에서 독립했으나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미혼' 혹은 '비혼'의 딱지 하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색안경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단순히 미혼/비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역시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서술해 나갈 것인가와 아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서술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이데올로기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문제시되는 것, 이것이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이다.

결론적으로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정상가족 내에 있거나 있지 않거나

나 개인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일 뿐이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이미 너무 허구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는 정상가족을 꿈꿔야한다고 말하고 개인이 전략적으로라도 그렇게 살아야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개인은 정상가족의 꿈을 좇을지라도 여러 가지 폭력이 전가되는 상황 속에서 개인은 무기력해질 따름이다. 하지만 이성애중심주의가 허구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허구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너무나도 다채로운 가능성들이 펼쳐진다. 정상가족 이외의 선택지가 하나하나 더 늘어나기도 한다. 그런 가능성들을 버려두고 개개인들은 그저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개인을 끼워 맞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그저 그러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잘 살 수 있는 사회이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주의자가 탈이성애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탈이성애중심주의 함께 말해보자고 하는 것이다. 가부장제 망해라!

-나무

너는 이성애를 하고 가족을 꾸린다.

얼마전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몇몇 민간기업 직원들의 미팅 프로그램 '사랑의 스튜디오'를 주선한다는 기사가 났다. 벌써 올해 들어 세 번째 하는 행사였다. 관계자들은 '한 번 해보니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았고, 지난 미팅에서 열 커플이 탄생하는 등 결과가 좋았다'면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열겠다고 했다. 대체 왜 나라에서 나서서 미혼남녀의 결혼을 주선하는 커플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는 것일까? 처음 프로그램을 제안한 롯데백화점 사장의 말에 의하면 '비혼 혹은 미혼이 저출산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을 성사 시키는게 우선'이라고 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이에 동의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란 말인가. 결혼만 시켜주면 모두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낳아 기를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아이를 낳는 것이지 결혼한다고 다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출산휴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아이를 기를 경제적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아 놓지만 하면 그 아이가 저절로 이 나라의 미래 일꾼으로 자란단 말인가? 물론 우리나라는 결

혼한 커플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는 것만을 '정상' 가족으로 '인정' 하는 분위기이니,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쯤은 되겠다. 그러나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이는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즉,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개인의 선택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산을 담론화하고 기혼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을 당위로 규정하면서 출산을 은근하게 강권하는 것, 그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이런 프로그램에는 이성애중심주의가 숨어있다. 모두가 다 여남커플로 딱지어 결혼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비혼으로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서 기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여/남남 커플로 가족을 꾸리고 싶은 사람도 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 살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신청자를 받아서 여는 행사니까 '결혼하고 싶은 이성애자'만 신청하면 되겠지만, 정부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비혼 직원들이 여남커플로 딱지어 결혼시키려는 분위기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개인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20대 후반부터 혹은 서른만 넘으면 "왜 아직도 결혼 안하니?"라고 자꾸 되묻는 이 사회에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할까.

이 나라가 이성애중심주의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일은 또 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날'이 그 예다. 생도의 날은 일반 대학에서 하는 축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생도의 날에는 한 가지 필수품이 있다. 바로 '이성 파트너'다. 모든 생도들은 미팅을 열면, 스무 번을 하든 친구에게 부탁하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이성 파트너를 데려와야 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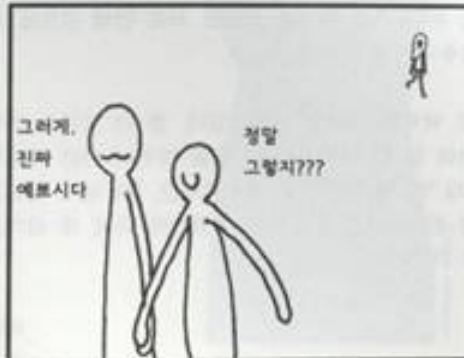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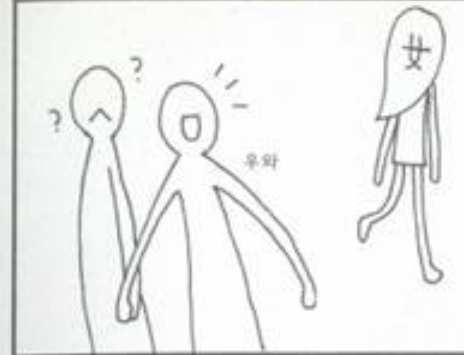
성 파트너를 데려오지 못하면 엄청나게 혼이 나기 때문에 모든 생도가 이성 파트너를 데려온다. 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도 이성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좀 더 거창하게 '피양세'라고 부른다. 약혼자라는 의미다. 모든 생도들은 '피양세'를 데려와서 후에 생도들이 꾸며준 기숙사 방에서 파티를 하고, 졸업 축제를 즐긴다. 하,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다. 생도일 때는 이성 파트너를 데려오도록 하고, 졸업할 때가 되면 그 이성 파트너가 '피양세'가 된다니, 장차 나라 지키실 군인님들은 국가에서 연애도 결혼도 책임지고 시켜주겠다는 건가? 육군사관학교에 다니는 비이성애정체성을 가진 생도나 독신주의 생도는? 그들에게도 이성애를 강요하고, 결혼을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가족을 꾸리라는 것은 얼마나 큰 폭력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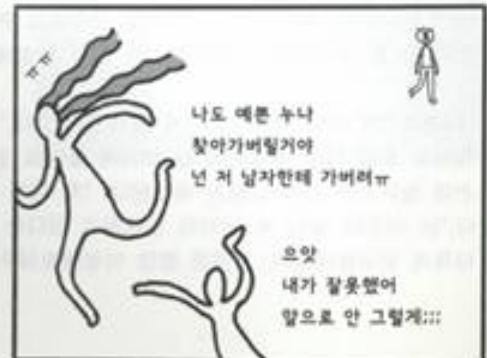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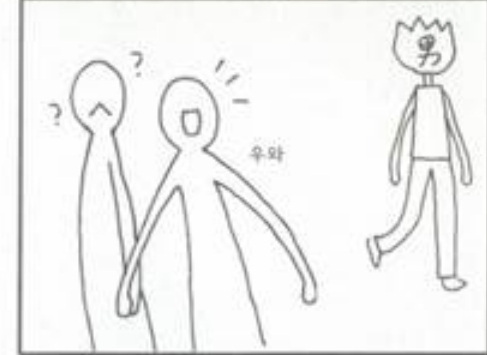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연애와 결혼에 국가가 관여하며 운영하는 '비혼 남녀 짝짓기 프로그램'은 이성애중심주의를 공고히 하며,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재현해낸다. 왜 모두가 연애하고, 모두가 그 연애를 바탕으로 결혼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누구랑 연애를 하든 사랑을 나누든 결혼을 하든, 모두 나와 상대방이 결정할 일이다. 어떤 사람이 연애가 귀찮고 결혼이 싫다면 얼마든지 혼자 살 수도 있다. 나는 정말 의아하다. 왜 자꾸 이성애중심주의의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아무도 그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까.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게 많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텐데, 국가가 우리에게 해줘야 할 것은 결혼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안에서 행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숨

女子



男子





해석의 차이

남자 애인과 길을 걷다가 예쁜 여자를 만났다. 예쁜 여자를 보고 예쁘다고 말했더니 애인도 그 여자가 예쁘다고 말했다.

남자 애인과 길을 걷다가 이번에는 잘생긴 남자를 만났다. 잘생긴 남자를 보고 잘생겼다고 말했더니 애인은 토라졌다.

애인에게 내가 예쁜 여자, 멋진 카페, 귀여운 고양이를 보고 예쁘다, 멋지다, 귀엽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잘생긴 남자를 보고 잘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둘 사이의 연인관계를 위협하는 발언이었다.

여성인 내가, 어떤 남성의 외모를 칭찬했기 때문에 그 남성에게 대한 애정 표현을 했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외모를 칭찬할 때 그 대상이 이성이라면 어떤 성적인 끌림, 연애를 전제한 호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이 동성이라면 이러한 성적 끌림이나 연애와 관련된 감정이 전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사랑하고 연애할 수 있지만 여성과 여성은 서로 연애 감정을 느끼지 못 할 것이라는 이러한 편견은 결국 이성애중심주의의 발로다.

나에게 "저 여자 예쁘다"와 "저 남자 잘생겼다."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둘 다 멋지고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인상이라 참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여 말 한 이야기가 내 입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저 여자 예쁘다."는 내 의도대로 해석되지만, "저 남자 잘생겼다."는 의도와 달리 저 남자와 연애하고 싶다는 말이 된다. 내겐 같은 맥락이었는데 대체 왜 해석은 다르게 받아들여질까. 그것은 분명 이성애중심주의의 기만이다.

_기린

장례식장에서.



할머니, 장례식장의 떠돌이들과 술과 고쳐하던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시간은 벌써 한참이 흘렀네요. 할머니의 장례식장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기에 언젠가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살아 게실 때는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셨던 착한 손녀가 장례식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는 참 많은 사람이 다녀갔어요.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나누던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은 친척들 사이의 시기질투나 일력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도 종종 하는데 우리 고모 삼촌들과 사촌들은 다 좋은 분들어서, 사촌이라는 핏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있어서 더 좋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다 할머니가 덕이 많아서겠죠? 특히 고모들과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대가 없는 애정을 주고 치자를 보내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영 장례식장은 얼마나 별명했는지 혹시 아세요? 자녀 없이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화환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생이 사후에 평가받는 건 이런 방식을 통해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들딸 낳고, 결혼시켜서 손자 손녀 보고, 그 자손들이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게 되는구나. 할머니,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어떨까요? 아들이 없어서 상주 역할하면서 절 받을 사람도 없는데, 가시는 길에 영정은 또 누가 들어야 할까요? 똑똑하고 하고 싶은 일 많은 동생은 결혼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제 배우자는 장례식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 할머니, 저는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친척들은 참 따뜻했어요. 저는 연대 다니는 착한 조카니까요. 그런데요, 언제까지 제가 착한 조카일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고모들이 저에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듯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참 좋아하시면서 도움 주려 하실 이 분들이, 딱번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여자친구 데려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할머니,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래도 제가 착한 손녀인가요?

저는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와 정례식장에서, 우리의 따뜻한 정서가속 속에서 제가 비정상이라는 건 가슴 따리는 먹먹했었어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의 시선에 인사했듯이 제 배우자가 엄마의 시선에 인사할 수 있을까요? 아아, 엄마가 눈을 번쩍 뜨고 팔을 내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친척들 사이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남부끄럽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출으신 분들이니 내치지 않더라도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조카한테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마치 소신있는 독신여성인 것처럼 평생 부모도 속이고 친척들도 속이면서 살아야겠조. 아니 어쩌면 가짜 남자친구를 만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정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 뭉개나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친척들이 호의를 보일 때마다 속으로는 벅을 느낄 거예요. 그분들은 진심이라라도 저는 진심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차라리 나쁘더라도 서로 진심인 게 나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레즈비언이에요. 그렇게 공표하면 또 저를 사랑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아파하시겠어요? 얼마나 고민하시겠어요?

할머니, 우리의 가족은 정상 가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비정상인 제가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저처럼 잠막을 치고 정상 가족 안에 머무는 수많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정말 정상 가족은 얼마나 많을까요? 친척들 중에 동성애자 한명쯤 있는 사람이 정말 다수일까요? 세상에 얼마나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많은지 잘 모르시죠? 할머니, 제가 볼 땐 사촌들도 동성을 만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고모도 여자와 살았다면 더 편안하고 행복하시지 않았을까요? 할머니, 자신이 정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정상일까요? 할머니는 여자를 좋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돌아가신 할머니, 그 곳에도 레즈비언이 있나요? 아니 그 곳에도 성별이 있나요? 성별에 관한 이 세상에서 사는 건 가끔 피곤해요. 내가 여자라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여자를 좋아하든 남자를 좋아하든 대체 뭐가 그리 큰 일인가요? 레즈비언이라고 정체화하지 않던 고등학교 때보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진 지금 저는 더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불안해야 할까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여자의 몸을 벗어났으니 더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성별과 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상하거나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할머니도 느끼시죠? 먹먹하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보니 할머니의 토닥임이 느껴지네요.

—보리



당신 주변의 퀴어들

지금까지 이런 주제의 글은 수도 없이 많았다. 이제는 식상한 주제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또다시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아직도 동성애자가 막연히 어디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자기 주변에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다. “나, 여기 있어요!” 라고.

간혹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한다. “근데 난 아직 내 주변에서 동성애자를 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그러면 난 속으로 슬며시 웃는다. ‘이봐, 당신과 이야기 하고 있는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자, 그렇다면 정말 당신이 한 번도 퀴어를 본 적이 없는지 한 번 볼까?

당신은 혹시 학관에서 밥을 먹어 본 적이 있는가? 종합관에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시험기간, 중도에서 벼락치기 공부를 해 본 적 있는가? 아카라카에는 가보았는가? 이정도만 하더라도 당신은 적어도 퀴어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로 숨 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 기독교와현

대사회, 고급대학영어, 수학과금융사회, 영화의 이해, 러시아문화와예술, 사진예술의이해, 디자인과문화 등등, 이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퀴어 옆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고, 함께 조모임을 했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나 퀴어요.’ 하고 밝히는 사람은 없었으니 믿을 수 없다고? 지금 핸드폰을 열어 전화번호부를 살펴보자. 퀴어가 단 한명도 없다면 당신의 인간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내 친구에게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인가 하고 말이다. 정말이다.

퀴어들은 이성애자들과 매우 다르고 별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과 같이 학교에서 수업 듣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학관에서 밥 먹고, 과외도 하러 간다. 당신처럼 과제에 치이고, 내일 보는 시험을 걱정한다. 그 사람의 성/별정체성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과 별로 다르지 않은 20대 대학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사람들은 퀴어인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퀴어에 대해 툭툭 내뱉곤 한다. 그것은 그들이 내가 커밍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를 이성애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퀴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퀴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길 바란다. 당신의 소중한 친구가 당신의 그런 한마디에 상처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음지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부디 알아두시길. 퀴어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특히 당신 주변에서 당신과 함께 숨쉬며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야 어느날 드디어 당신에게 커밍아웃하는 친구가 나타났을 때, 당신 눈에도 퀴어가 보이기 시작할 때, 당황하지 않을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마주친 새로운 세계를 반갑게 마주하시길.

—솔



현재 복제된 풍경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고등학교 때 동성애를 주제로 소규모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다. 동성애 찬성측과 동성애 반대측으로 나누어서 열정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찬성측이었다. 나는 토론을 할 때마다 항상 소수자 측에 섰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장애인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니라서 소수자의 입장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들의 입장이 존중되고 배려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소수자든 다수자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글쎄, 지금 생각하면 나는 장애인도 아니었고 동성애자도 아니었고 저소득층도 아니었어도 충분히 소수자적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체육을 잘 못 해서 피구할 때면 항상 팀에 먼저 뽑히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것. 편득편득한 것을 못 먹어서 급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으라는 선생님의 강요 앞에 토할 것 같은 것을 참으며 떡을 망연히 보고 있어야 했던 것. 국가에서 한다는 설문조사에 실명과 주민번호를 대고 참여하기 싫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는 그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두 시간이 넘게 혼자 빈 교실에 앉아서 기다려야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소수자적 경험이었다. 지금의 내 삶이 그때보다 더 소수자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어쨌든 연세대라는 권력과 성인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은가. 이제 나를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나에게 무엇을 강요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우습게도 그 때 나는 스스로 소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은 소수자라고 생각한다. 그 때 잘못 생각했던 걸까,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사람은 소수자가 아니었다가 소수자가 되었다가 할 수 있는 걸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반 친구들을 사귀는데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나는 안전한 아이였고, 모범생이었다.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었다. 그러다 중3때 그 아이를 만나서, 처음으로 '애와 친

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불타올랐다. 개와 중2때까지 친하던 다른 반 아이를 엄청나게 시기했고, 우리 둘 사이에 끼어든 다른 친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했다. 그 친구와 교실 옆 뒷자리에 짝으로 앉아서 매시간 공책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 가며 질리지 않고 이야기했던 기억,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던 기억, 그 친구가 그려줬던 그림, 녹음해 줬던 목소리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아련하게 남아 있다. 그러다 2학기가 되어 그 친구는 반 남자에 한 명에게 고백을 받고 사귀게 되었는데, 나는 그 때 재빨리 내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 나에게도 그럴 막거나 질투할 만한 아무런 명분이 없었지만,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는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때 보호자의 입장이 되었고, 다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조언자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그 짝꿍 연애를 지켜보았다. 사실 처음부터 그리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연애했다. 나중에 우리는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왕래가 뜸한 것을 서운해했던 내가 화를 내며 연락을 끊어서 한 4년간 연락 없이 지냈다. 그러다 대학에 와서야 내가 그때 미안했다는 내용의 멀티메일을 보낸 것을 계기로 다시 만나서 절친한 친구로 지내게 되었다. 지금도 그 친구와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이 이야기의 어디에 나의 소수자성이 드러날까? 난 이 경험을 근거로 나를 소수자로 정의하게 될 거라고는 그 애와 친구로 지내던 2년과 연락하지 않던 4년, 총 6년 동안 상상도 해 보지 못했다. 사실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나의 경험이 정말 소수자적 경험이었을까? 다른 이에겐 이런 경험이 없나?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을 사랑으로 해석하면서 나는 소수자가 되었다.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게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당시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어쩌면 주변에서는 나의 태도를 그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다. 체육 선생님이 그 애의 공 던지기 자세를 봐준답시고 한참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반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던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나는 그 때 나를 소수자로 느끼지 않았다.

나에게도 동성애는 '이해'하고 '인정'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 토론은 고등학교 2학년때 했는데 토론을 하는 내내 나의 중3때의 경험은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 나는 동성애자 존중해야 하고 동성애 인권 보호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한 번도 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실제로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가 '나 동성애자야'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충격을 받았나보다. 그 친구와 나는 팔방을 끼고 백양로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때가 우리가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었다. 우리는 동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컴투게더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뭐뭐뭐뭐 뭐 뭐 컴투게더? 거기 성소수자 동아리 아니야? 거길 내가 왜? 반문했던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다. 그야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친구의 말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 머릿속이 갑자기 백지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하나 세포가 생기는 느낌이었을까? 그리고는 이내 쿨하게 무하하하 웃으면서 진짜? 정말? 난 전혀 몰랐어. 나 이런 거 처음이야. 하고는, 뭐라뭐라 이야기를 하면서 더 가다가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저앉아 머리를 싸 쥐었지. 이게 무슨 일이라. 어떡하지? 내가 뭘 어떡해야 하지? 내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밖에서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아무튼 난 곧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와 다시 팔방을 끼고 교문까지 걸어가 뺨이뺨이했다. 나는 올바른 사람이니까. 근데 그 팔방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고 교문까지 그 거리가 그렇게 길더라.

이게 나의 이성애중심주의 세상이 깨어진 첫번째 순간이었다. 내 세상에는 이성애자만 있고 동성애자는 특별한 곳에 있는 줄 알았던 나의 이성애중심주의, 그리고 숨겨져 있던 나의 호모포비아. 그 후에도 나와 그 친구는 자주 만났고 나는 차차 익숙해지긴 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스스로의 호모포비아를 회피하며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얼마 뒤, 대학 오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진

지하게 상담을 해 왔다. (헛갈리니까 처음 친구를 A, 뒤의 친구를 B라고 하자)나 요즘 천상지화의 스테파니가 너무 좋아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어. 나는, 뭐 어때! 레즈비언은 이상한 게 아니라 레즈비언이어도 괜찮아. 못 믿겠으면 내가 실제 레즈비언을 보여주지 하고는 A에게 사정을 말하고 부탁해 셋이 만나서 식사를 했다. 그 이후 나와 B와의 긴 정체성 상담이 시작됐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 원래 사람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사이의 스펙트럼 속의 한 곳에 서 있는 거고 그 위치는 변하기도 하는 거야. 네가 가진 이성선호와 동성선호의 비율이 너를 정상으로 만들거나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야. 그렇게까지 말해도 친구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한 마디를 더 했다. '나도 내가 이성선호보다 동성선호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뭘가가 깨어졌다.

어라?

내가 방금 뭐라고 말한 거지?

동성선호가 어떨다고?

이성보다 동성이 더 좋다고? 내가?

그때의 느낌을 잊지 못한다. 머릿속에 막혀 있던 혈관에서 갑자기 피가 흐르는 기분.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내 동성애 정체성을 인정한 건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부정하고, 그러다 사이가 멀어지고, 그걸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 아무래도 개 좋아했나봐 하고 눈물로 인정한 것은 좀 더 나중의 이야기다. 인정하고 나서 퀴어 영화도 보고 레즈비언 커뮤니티도 기웃거리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존감을 찾았고 이젠 이렇게 탈이성애중심주의를 외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친구 B는 얼마 후 여자애인이 생겼다는 훈훈한 이야기. 안타깝게도 지금은 깨져서 외로워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모두는 스펙트럼의 어느 한 부분에 서 있고 그 위치는 변한다고. 나처럼 동성이 더 좋다는 걸 무의식적으로는 알지만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성애를 하는 자신에게 아무 불편을 못 느끼고 있다가도 어느 날 한 동성에게 반할 수도 있는 거라고. 당신의 어릴 적 단짝친구와의 경험은 어쩌면 사랑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라고. 어느날 당신이 동성을 사랑하게 된다면, 나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성은 움직인다. 그래서 퀴어다. 모두의 성은 움직이고 그래서 모두는 퀴어이다. 그래서 퀴어의 성은 움직인다. 이성애자인 당신도 퀴어이다. 이성애의 수없이 많고 다양한 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 속한,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무한한 성의 이동경로 중에서 어느 한 경로로 움직일, 그래서 다른 이성애자들과 같다고 말할 수 없는 퀴어한 존재. 모두는 일부분에서 소수자이고 일부분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지만 소수자로서의 자신을 좀처럼 사랑하지 못한다. 소수자로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다면 자신을 어떻게 정체화하느냐 하지 않는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퀴어인 당신을 사랑하고 퀴어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길. 그러면 당신 안에서 세상은 무지개색으로 찬란히 빛날 거니까.

_보리

안개 속에서 걸어나오기

여성성과 명예남성. 그 어느 쪽도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 년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여성성을 가진 명예남성이 되어야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수행하려 했던 나는 혼란스러웠다.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이 사회에 이성애중심주의가 그렇게 공고한 줄 몰랐다. 초등학교 때는 연애가 큰 관심사가 아니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연애가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연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성애만이 전부라고 벽을 쌓아놓기 전이었다. 특히 여자 중고등학교에서는 후배들과 동급생들의 우상이 되는 멋진 여학생이 한 둘쯤은 있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대학에 오자 갑자기 너무나 공고하게 느껴지는 이성애중심주의에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모두들 나에게 '새내기 여대생'이니 화장해야지, 치마 입어야지, 구두 신어야지, 예뻐져야지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화장에 관심이 없었고, 교복외에는 치마를 입어본 적도 없으며, 발이 아픈 구두보다는 운동화가 더 좋았다. 또, 반의 분위기를 보니 예쁜 여자 새내기가 되면 선배나 동기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잘해준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나는 왠지 모를 압박감에 여성스러운 여자가 되려고 했다. 이성애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다. 나름대로 여성스러운 옷을 골라 입고, 머리를 길러 반목음을 했다. 귀걸이도 했고, 가끔씩 치마에 구두도 신고 왔다. 사람들은 나에게 예쁘다며 머리를 더 기르라고 했고, 치마를 입고 온 날은 미팅에 가라고 물었다. 그 때, 그놈의 미팅. 왜 미팅을 안 하냐고 자꾸 나를 몰아붙이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미팅에도 나갔고, 심지어 남자아이와 소개팅도 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남자애기에 열을 올릴 때면 나도 맞장구를 쳐주며 관심 있는 척했다. 사실 나는 소녀시대가 좋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면 내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이 들롱날 것 같았고, 그 후의 학교 생활을 생각하면 무서웠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수업이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던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난 호모포비아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난 내 주변에 호모새끼 있다고 하면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릴꺼야." 그 말은 나에게 엄청난 공포였다.

이렇게 '새내기 여대생'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나는 남자 동기들과 어울리기 위해 명예남성이 되었다. 나는 내가 명예남성이 되면 내가 원하는대로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보다. 그래서 남자 동기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쿨하고 털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여자 애기를 할 때면 공감하는 척 같이 떠들었다. 그렇게 남자 동기들과 매우 친해져갈 때쯤 나는 서서히 어떤 벽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들과 가까워질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나를 축구게임에 끼워주지 않았고,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도 피씨방으로, 다른 남자선배

집으로 갔다. 그러던 중에 친하게 지내던 남자동기가 나에게 고백 비슷한 것을 해왔다. 그때 알았다. 아, 난 여전히 잠재적 연애대상일 뿐. 진짜 친구가 될 수 없구나. 그리고 점점 그들과 거리감을 느끼며 멀어지고 나서 알았다. 나도 그저 다른 여자애들처럼 그 남자아이들에게 술자리의 안주거리가 되어 그들의 입에 오르내렸겠구나 하는 것을.



이게 뭘까? 이게 뭘지 나도 모르겠다. 이미 예전에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대학에 오면서는 나도 모르게 이성애자처럼 보이고자 했고, 잠시나마 나도 이성애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여성스러움을 강요 당하는게 그렇게 싫다고 했지만 여성스러워지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모순되게도 더 남자 같아지려고 했다. 그러면 남자들이 나를 잠재적 연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가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시간들이다. 하지만 역시나 나 자신을 숨기고 사는 것은 나를 숨막히게 했고 오래할 수 없었다. 가끔은 백양로 한 복판에서 "나 레즈비언이야!!!" 하고 외치고 싶을 만큼 답답했다. 결국 난 한 학기만에 그 짓을 그만두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성애중심주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들다. 남녀를 연애관계로만 엮으려는 사람들, 여자니까 '여성스럽게' 보이라는 사람들, 젠더의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한데,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여 남자 아니면 여자로만 나를 규정하려는 사람들. 나는 이제 이러한 이성애중심주의/이성애주의를 거부한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어찌보면 아주 소소하다. 그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누가 누구를 '인정' 하고 '이해' 하고 그 따위 것들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좋겠다.

—술

연애 권하는 세상



스물 다섯 살까지 연애를 안 해보면 마법사가 된 다던가? 그렇다면 왜 내가 마법을 쓸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난 분명히 연애경험이 없다. 못 동성애자들이 흔히 경험한다는 유사연애도 그다지. 이거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없다. 심지어 나는 지금도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스물다섯이나 먹어서 아직도 연애 안 하면 이상한가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기도 했지만 결론은 '역시 나는 연애 안 하는게 낫겠어'였다. 얼마전에 친구하고 잠을 봤을 때 '올해는 인연이 없어!' 라는 정정이의 단호한 말에,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아 다행이다. 이제 피곤하게 연애 같은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하던대로 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서 자괴감을 느꼈던 일이 종종 있다.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같이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수도도 댄 것까지는 좋는데 왜 별로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지! 나 정말 이래갖고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무성애자는 아닐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무의식적으로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걸까? 혹시 호모포비아 때문인가? 동성과 연애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 동성애자예요, 라고 말하기란 아무래도 어색했다. 게다가 연애 안 해본 사람을 마법사니 요정이니 하면서 농담거리로 삼

는 것이 일상적인 사회에서 연애경험이 없다는 건 남들 앞에 말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솔로원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는 질문에 그냥 오래 됐어요라고 대답하면서 입맛이 났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내려놓고 나니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다. 왜 나는 연애에 대한 욕망이 없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고 고민해야 했을까? 왜 사람들은 모든 이들이 연애를 하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 역시 그 명제를 그냥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왜 나는 연애하지 않는 것을 나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불안해해야 했나?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더욱 연애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만날 때마다 나오는 애인 언제 생기는냐 이야기, 요즘 만나는 사람 있냐는 질문들, 연애에 대한 욕망은 너무나 당연시되고 벗어나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동성애자가 동성과 연애하는, 또는 연애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면 나는 예전 내 정체성을 심각하게 의심해야 했다.

사실 의심해볼 것도 없다. 동성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고 성적 파트너로 동성을 원하는데 뭐 달리 의심해볼만한 여지가 어디에 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연애는 왜 안 하나요? 글쎄, 생각해보면 '이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지하게 오래 해 본 적이 없다. 끝없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아파고 힘들 것 같아, 좋아하긴 하지만 성격이 맞는 건 또 별개니까, 이러이런 건 서로 맞추기 어려워서 매일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런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끌리는 건 끌리는 거였고 만약 내가 사귀자고 했다면 사귀었겠지만, 역시 오래 못 갔을 것 같고 그냥 안 사귀고 친구로 남아서 다행이다.

나는 지금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사랑하는 대상들도 넘치게 많다. 지금 사랑하는 것들도 다 챙기기 어려운데 굳이 한 사람을 정해서 더 사랑해야 할 필요는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막을 필요 없이겠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애가 곧 연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성애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거지만 연애라는 건 보통의 관계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애인이라는 게 인연이 있으면 생기는 거지 꼭 그렇게 애인을 구하려고 전전긍긍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놈의 연애 때문에 세상의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상처입고 멀어져 갔는지,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지쳐가면서 깨어졌는지 모르겠다. 쉽게 전제되고 권장되는 연애에 대한 욕망들이 성별 사이에는 깊은 골을 만들고 동성애 커뮤니티에는 소모적인 '간 보기'들을 만든다. 연애를 전제로 만나고 연애대상으로 아니다 싶으면 그만 만나는 걸 반복하는 건 정말 피곤한 일 아닌가? 그렇게 해서까지 연애를 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왜 그렇게 모두들 연애를 하고 싶어할까. 연애하면 좋은 건 알겠지만 연애 안 해서 안 좋은 건 또 뭘까. 외로운 게 애인이 없기 때문일까? 사회가 지금처럼 파편화되고 경쟁적이 되기 전에는 연애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 공동체 속에서 애정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관계에 대한 갈망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은 없을 텐데, 성애적 욕망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개인이 내밀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꼭꼭 닫아 놓고 쉬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괴로움이 될 정도로 억압되고 증폭되지는 않을 거다. 결국 개인적 욕망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기형적 탈출구가 연애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흔히 연인관계에서 온갖 욕망들이 수없이 겹쳐져 서로를 구속하게 되고 상처입히게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흔히 연애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권장되고, 연애 안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남성에게

더 심하다. 남성커뮤니티에서 연애가 이야기되는 맥락을 살펴보면 연애가 남성성의 입증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이 말방을 보면 알 수 있다.



연애를 안 한다고 해서 게이가 될 리가 없는데(게이는 뭐 연애하기 쉬운 줄 아니?) 이 말방을 보고 그렇게들 힐끔대고 웃으면서 뭘 느끼는 걸까. 남성이 이 사회에서 남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애가 필수조건이다. 혹시 경제적 권력과 예술적 성취함과 미모와 인기까지 겸비한 초식남이라면 조금 고려해볼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하지만 연애 안 하는 남자가 곧 여성적인 초식남으로 그려지는 것 역시 남성성과 연애의 공생관계를 드러내는 사회적 일면이다-각주로 해주세요 워드패드 작업중이라) 그렇지 않으면서 연애도 하지 않는 것은 곧잘 그 사람의 이성애적 정체성에 대한 의심으로 작용한다. 그에 대한 방어로 연애하지 않는 남자들은 '안생거요'를 외치며 연애에 대한 욕망을 과장해 전시하고, 게이를 희화화하고 타자화하며 자신의 거세공포를 몰아낸다. 연애를 위해 남성은 더욱 남성적이 되어야 하고, 여성을 잠재적 연애대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연애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역시 더욱 여성적이고 매력적 이기를 요구받으며 공적 공간일수록 여성성을 전시하는 옷차림과 말투, 행동거지가 권장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애 권하는 사회는 이성애중심주의를 발판으로 만들고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젠더 규범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를 강요한다. 내가 연애하지 않는 것을 동성애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던 것 역시 이러한 이성애중심주의적 사회적 작용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동성애자인 나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시켰기 때문은 아닐까.

연애에 대한 욕망을 그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당연시하기에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사회적 기제들이 너무나 많다. 어쩌면 연애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회적 모순과 갖가지 요구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아닐까? 연애하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역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의 불안과 갈망 속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연일히 살펴보고 당당히 펼쳐낸 만국의 슬로와 커피와 여남과 뛰어들어 조화로운 세상을 꿈꾼다.

은수



Nakajima Rie

이 땅에서

양성애자로 살아가기_이제는 말 할 수 있겠지?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똑같은 이성애 관계가 없듯이, 똑같은 양성애 관계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원리에 의해, 모두가 똑같은 양성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만약 어떤 여성 이성애자가, 자신의 이성애 경험을 서술하며 이 땅에서 여성 이성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험난한 지점을 설명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경험은 읽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성애자 여성 집단 전체가 그 사람이 발화한 일들을 겪을 것이라고 쉽게 일반화시켜 읽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한 개인'의 이성애자가 겪은 어려움을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이지, 그것이 이성애자 여성 집단 전체의 경험성으로 환원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하고 2차적 판단 문제로 유보할 높을 것 이다. 하지만 소수자의 입장 -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난 양성애자가 (수적으로) 별로 소수인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발화하는 사람은 이성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숫자인 것 맞는 것 같다! - 을 서술하면, 그것은 쉽게 일반화 가능성의 위험을 띠게 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떠한 개인의 1차적 경험으로 볼까 동시에 매우 강력하게 그 사람이 소속되어있는 집단 전체의 경험성으로 일반화시키려는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 편견이 더 심하게 발휘한다.

도대체, 무엇이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가? 내 이야기를 풀기 전에 걱정해야 될 것이 앞서는 이 상황이 싫기도 하지만, 적어도 난 이 글을 읽고 '양성애자는 모두 이렇구나' 라고 일반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와 동시에, '저 양성애자 개인 만의' 특별한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지닌 채 이 글을 읽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미안하다. 친절하고 싶었는데.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들과 당연하게 전제로 깔고 넘어가는 몇 가지 지점을 내 이야기를 풀기 전에 설명하고 싶다. 이 땅에서, 이성애는 일종의 권력이다. 이성애자임을 아웃팅 당해서 괴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혹시 있다면 꼭 제보 바란다. 개인적으로 몹시 궁금하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성애자임이 당연히 전제된다. 정말 절대 다수의 부모와 손윗 어른들은 우리의 손자가 당연히 나중에 어떤 여자 아이를 좋아할 것임을, 그리고 우리의 딸의 당연히 나중에 어떤 남자 아이를 좋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에서 이성애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거의 모두는 자신이 이성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시험하도록 강

¹⁾ 흔히 소수, 혹은 소수자라는 표현은 숫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수자라고 부르는 것은 양적인 의미보다 권력적으로 소수여서 소수자라는 표현을 쓴다. 양성애자는, 숫적으로는 소수라고 부를 수 없겠으나 권력적으로는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압을 받는다. 사회적 강압? 제도적 강압?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 영화 러브엑츄얼리에서처럼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너가 좋아하는 여자 혹은 남자 아이가.. 라고 묻을 때면서 묻는 걸 난 이 땅에서 본 기억이 없다. 애초에 이성애의 가능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개인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런 게 이성애중심주의의 사회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땅의 퀴어는, 자신들을 퀴어라고 정체화하기 이전에 이성애자였다. 그들이 이성만이 취향이다가, 어느 한 순간의 계기로 그 기호성을 멈추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그보다는, 이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돌아가는 이성애 중심주의의 모습에 끊임없이 적응하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자신의 실제 모습과 맞지 않음을 수 없이 깨닫고 자신이 퀴어임을 받아들이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에 가깝다. 거의 모든 퀴어들은 자신들의 퀴어성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쉽지않는데 그 이유는 사회에서 주어지는 이성애중심주의의 구도에 순응하라는 강요를 받기 때문이다. 그 강요는, 꽤나 강력하다.

여기에서 양성애자 (그래, 양성애자 모두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내가 세상 모든 양성애자를 만나 본 것도 아니니)가 받는 강요는 다른 퀴어가 받는 강요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 그 억압을, 뭐라 지칭해야 될까? 여기에서 내가 그 지칭을 임의로 만들어보자면 '왜? 난 이성을 좋아할 수 있잖아!' 라는 억압이다. 분명히, 양성애자는 이성을 좋아할 수 있다. 뭐, 좋아하든 욕망하든 기호하든 무엇이 라고 표현하든지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양성애자지! 그런데 그게 어째서? 왜? 왜, 이성을 좋아할 수 있으면 굳이 이성'만' 을 좋아해야만 되는데? 이러한 질문을 감히 말하고 다니는 양성애자는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위험' 한 존재²⁾가 되고 만다. 아, 너, 동성만을 좋아하는 거라면 내가 널 말리지 않겠어. 그래 너가 동성'만' 좋다는데 내가 어쩌겠어. 평생 사랑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짐짓 이해하는 척의 말투와 함께, 그런데 난 동성애자와 달리 '이성'을 좋아할 수 있잖아! 그럼 이성'만' 좋아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굳이 '힘들게' 살아야 되는거야? 라는 독촉과 강요들이 뒤따르게 된다. 그 강요는 언뜻 보기에는 참 합리적이다. 이성애가 우월하다는 전제만 받아들이면 되니까 말이다.

여기에서 나는 이 땅에서 이성애자로 보여지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편리'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싫다.³⁾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보자 어느 것이 편리하다고, 그것이 다 올바른 것인가? 왜 다양한 사람의 모습들 중 한 모습만 편리한 삶을 살도록 제도화한 거야?⁴⁾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 개인에게 다양하게 열려있는 선택의 가능성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였다고, 그

²⁾ 양성애 정체성을 말하고 다니는 양성애자는 굳이 이성애 같이 '안전' 한 길을 이성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 길만 택하지 않고 동성을 좋아하는 '위험' 한 길을 같이 선택해서 걷는 이상한 존재로 쉽게 취급받는다. 물론,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이성애중심주의에 젖어있는 편견에 가득찬 생각이라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더구나, 동성애자에게는 '동성만 좋아하는 재래들 이상애' 라고 쉽게 내리뉘쳐서 타자화 시킬 수 있는 반면에, 경계를 넘나드는 양성애자에게는 이성애자가 그런 목적을 쉽게 취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대적,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양성애자는 취급 곤란한 이상한 애들로 차별받는다.

³⁾ 내부 토론 중, 도대체 이성애자로 보여지는 게 왜 '편리'하다는 의문이 나왔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도무지 편리할 수 없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애중심주의가 굳건한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 사회의 공고한 이성애중심주의적 제도적, 사회적, 직업적 혜택을 누리는 애들이 '편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비 이성애자임을 발현할 때 들어오는 불이익과 귀찮은 질문들도 줄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편리함을 즐기는 어떤 사람은, 위장이나 자기 암시 등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를 이성애자로 보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얻는 감정적 이득보다 더 클 수 있다.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문제인데, 그 선택과 별개로 적어도 이성애자로 보이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저 혜택들과 이성애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항상 비관해야 될 지점이다.

⁴⁾ 적어도, 이 땅에서는 이성을 좋아하는 삶만이 편리하도록 세상이 제도화 되었다는 뜻이다.

가능성 중 단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누군가가 강요 받을 수 있는가?⁵⁾ 그런데 그런 일은 양성애자에게 종종 일어난다. 아, 정말 이성애중심주의가 날 피곤하게 해. 내가 이성을 좋아할 수 있다고 해서 이성'만'을 좋아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는 도대체 왜 나오는건데? 동성애자보다 더 이상한 인간들이라는 폭언들은 도대체 왜 나오는건데? 아! 솔직히, 둘 다 안 이상해! 양성애나, 동성애나 둘 다 안 이상하다고! 그거 말고 다른 뭐어도 똑같아. 도대체 뭐가 이상해? 소리쳐보자 외침은 때때로 공허하게 돌아온다. 피곤하다. 그래, 이 말이 적절하다. 귀찮고 피곤해, 그런 억압들은.

도대체 뭐라고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지금, 이성애중심주의의 억압에 따라 자신을 억압해 온 양성애자여, 모두 자신을 깨우치고 계몽하자! 이런 걸 적고 싶은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집단 성원에게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성향을 억압하도록 사회적으로 강압되어오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거잖아. 양성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사람들에게, 왜 이성애의 가능성만을 자꾸 강요하고 권유하는 거야? 이런 거에 좀 불만 가지면 안돼? 좀 틀들 거러보고 싶다. 내가 이성을 좋아했던 경험도 소중하지만, 내가 동성을 좋아하면서 겪었던 감정들과 기쁨들 그리고 여러가지 아픔과 슬픔 그런 모든 경험과 감정들도 내게 모두 소중하다. 지금, 그걸 멋대로 포기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개인이 가지는 가능성이 모두 실현되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⁶⁾ 그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그 당사자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양성애 좀 내버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겠지_비글



5) 이 문장은 중의적 의미가 있다. 1. 이성애중심주의적 세상에 굳이 그 길을 따르지 않음으로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선택의 가능성 2. 양성애자 개개인의 내부에서 다채롭게 열려있는 성적채성, 성적 지향 등의 선택의 가능성이다. (이것은 각주 7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6) 뭐, 굳이 '계몽' 빼거나 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성애를 강압 받았고 순전히 그 영향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커서 자신을 이성애자로 정체화하면서 살아가는 양성애자가 있다면 그런 슬픈 지점만 건들립시다.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7) 양성을 좋아한다고 모두 자신을 양성애자로 정체화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성적 지향 하나만 고려하고 보았을 때, 양성애자인 어떤 사람을 하나 가정해보자. 그 사람은 자신을 양성애자로 정체화하는거보다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게 자신의 종합적인 정체성에 더 맞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지칭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성애자라고 자신을 정의내리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양성애자라고 자신의 성적지향 그대로 자신에 대해서 정의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퀘스처닝 등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한다. 아마 내가 잘 몰라서 못 적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 가능성들 중 어떤 가능성을 실현할 것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의 몫이다. 하지만 이성애중심주의 사회는 이성애자라고 자신을 정체화하는 것만이 옳바르고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길이라고 양성애자에게 몹시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호모포비아와 커밍아웃

내가 스스로를 비이성애자로 정체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딱히 비이성애자로 정체화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안 되는 이유라는 것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감동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비이성애자로 살아가기는 고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를 레즈비언으로 바라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년 후에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내가 호모포비아 스트레이트인줄 알았다고 성토했다. 가히 내 생애를 후려치는 충격이었다. 내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좋아라하고 쫓아다녔는데 어찌 모를 수가 있어. 내가 모범생에 농담까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천상여자라서 그런 줄 알았다고 2연타를 날렸다. 이성애자를 좋아하는 10대 게이의 고민이란 거대한 법이다. 현대 레즈비언은 또라이에 천상여자가 아니어야만 할 수 있는가??? 이런 건 뛰어 속 호모포비아 아니냐구.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오년 동안 좋아하고 출창 곁을 맴돌면서도 연인이지를 못했다. 오년 동안의 진지한 뽀뽀 더하기 뽀뽀일 도 합보다 나 너 좋아해!!! 라는 초등학교 오학년 같은 고백이 그렇게 강력한지는 몰랐더랬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오학년 같은 고백을 하기가 참, 너무, 어려웠다.

현대 레즈비언은
또라이에 천상여자가
아니어야만
할 수 있는가?

이런 건 뛰어 속
호모포비아 아니냐구.

이성애주의가 없었라면 우리는 그 때부터 푸욱 행복한 연인일 수 있었는데 라는 한탄 뿐은 아니다. 그 때 손을 잡았더라면, 입을 맞췄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거라 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우린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테다) 그저 모든 게 너무도 비현실적이었을 뿐이다. 내가 없다면,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너는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공공연하게 만들었다. 서로의 성장, 일상, 늙고 죽게 될 생애가 나 같은 걸로 방해 받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끊임없이 막다른 길과 마주하는 막막한 소통을 해 나가면서도 그 소통이 서로를

석이게 하고 변화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너는 절난 레즈비언이라서, 너는 아무 것도 모르는 이성애자라서, 너는 모범생에 진지하고 너는 제멋대로라서, 너는 연애를 하고 있어서, 너는 참 행복해보여서 가끔씩 만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그랬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말할 수가 없었다. 왜 우리가 만날 수라도 있었는지를 굳이 캐물어서 무너트리고 싶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어렵게 말을 꺼내도 실은 마음을 달고 귀를 달고 비현실적이고 비일상적인 만남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였지 않나, 너(나)의 모든 것이 나(너)에게 퍽 퍽 걸리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굴면서, 그 퍽 퍽 걸림이 몸 속 구석구석까지 치솟아서 서로를 연인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데 연인으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 하면서, 누굴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일이 보통 이렇게 힘든 건가?!!

추운 겨울에 너의 집에 내려가 쏙 내 나는 땀줄기를 끌어안고 오래된 보일러에서 나는 물도는 소리를 들으며 그 때 나는 사실은 이랬노라 길고 초라한 기억들을 한 글자 한 글자 타자 쳐 내려가면서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었던가, 비현실적이고 비일상적인 만남의 뒤 끝에 감돌았던 쓸쓸함과 무너져내림을 고백하고, 꺼안지 못했던 뒤통수들을 고백하고, 고백하고, 고백했다. 기억의 조각들을 그려모아 서로가 서로에게 남겼던 한 마디, 한 마디들을 되살려냈다. 그건 쏙내 보다는 물 도는 소리보다도 뜨뜻하고 연약했다. 다음 날 아침 토막장에서 깨어나는 것도 욕설 속에서 차를 끌어내는 것도 쉽



지는 않았지만 그 눈 내린 아침을 기억에 더하고자 한다.

각자의 정체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 또 그 정체화가 서로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 또 서로가 어떻게 어깨를 걸고 어려운 시절을 버텨 가는가의 그 과정을 우리는 함께 해왔다. 그래서 달고 달아 지쳤다. 서로를 만지고 물어뜯고 부비어도 아직도 서로가 서로의 연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현실감과 모호함을 다 털어내지 못했다. 관계에 대한 명쾌한 정의는 무의미하다. 나와 타자에 대한 명쾌한 이해는 무의미하다. 나에게서는 그랬다. 그럼에도 내가 그녀를 '연인' 으로서 사랑함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소통해나가는 것이 나의 삶의 어떤 시절에 필수불가결했다고 돌이켜 확인한다. 그 여운이 내 삶 곳곳에 응어려져 있음을 발견한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흥미해져 갈지라도 '연인' 으로서 그녀에게 내가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어렵고도 의미 있는 커밍아웃은 그녀에게 한 것이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 존재를 바꾸어가는 경험이었다. 사회적 타자나 비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어가며 동시에 타자이자 비체로서 겪게 되는 억압의 지점들을 피부로 느끼는 작업이었다. 이 두 가지 작업은 모순되어 보이나 같은 맥락 안에서 의미를 지닌다.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걸어갈 적에, 고개를 기대고 벤치에 앉아있을 적에, 내가 우리집에 놀러와 그냥 친구인양 가족들에게 인사할 적에, 누군가에게 너의 이야기를 할 적에 이성애주의에 세심한 균열들이 벌어질 때, 온 몸으로 모순되는 두 개



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다. 일상이 커밍아웃의 전격지가 되었다.



일상에서 언제나 커밍아웃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커밍아웃의 요구 자체가 이성애주의의 반증이며 이성애주의 언어의 발현이므로, 커밍아웃하고 나서 머리를 쥐어뜯기도 한다. 어떤 지 과잉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저 사람이 나를 이성애자로 생각하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무룩해질 때도 수없이 많다. 그래서 한 동안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성애주의의 기운이 너무 뻗어서 숨 쉴 수가 없었다. 사소한 한마디에 신경이 비뚤 곤두섰다. 내게는 이성애주의를 납득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나는 나를 이해하는 것만도 벅찼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밍아웃한다는 것은 이성애주의의 정상성의 억압 그 자체를 온 몸으로 받아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비이성애자요, 라는 몸과 말의 표현들이 어떤 반응들을 불러오는가, 어떤 변화들을 불러일으키는가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허허

살리라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어떤 관계들을 맺어나갈지,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는 역시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문화제가 열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그 속에서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까닭을 생각한다. 침묵하고 있으면 침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성 안에서 자기를 유지할 수가 있다. 성 안으로 들어가 입 닥치고 조용히 살라는 것이 자기 내부의 욕심인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그리도 흥겹게 나 귀여요, 라고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하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움직이는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일어 넣었다. 내 몸과 마음이 거기에 응했다. 일상의 이성애주의에 치이고 부대끼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욕을 뱉어냈다. 이성애주의 너는 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냐고, 나는 왜 모든 것이 쉽지도 빠르지도 간단하지도 않은 거냐고? 너의 편안함이 정말 네 존재로부터 나온 거라고 확인할 수 있냐고? 여기에 모인 서로가 서로를 비틀어 짜며 뛰어오를 듯한 생동감이 너에게 비할 쏘냐고,

..물안개

이런 시절에 이런 기억을 파내려니 참 힘이 든다. 어쩌면 지금 내가 나 자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일들도 차고 넘치게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비이성애자로

어쩐지 시니컬하고 꼬이는 날

-몸에 새겨진 언어들의 불쾌함

- 그 애가 너무 좋아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 이예요.
- 남자야?
-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를 두 번 말했다.
흠칫 놀라서 덧붙여 보기는 했다.

-여자라면 뭐가 달라지나요?

오늘도 두 시간 반 동안 탈이성애중심주의를 외쳤건만 나는 자동적으로 아니요, 아니요를 말했다. 남자가 아니라서 아니요, 이성애가 아니라서 아니요일 수 있겠다만 그 때의 나의 자동반사적인 대답은 철저하게 자기방어적인 것이었다. 예이, 아니예요, 저는 지금 남자나 연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예요. 그 애는 그냥 여자예요. 스스로에 대한 흥물스러움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이럴 때마다 나는 나를, 그 애를, 우리의 이야기를 세 번 부정하고 예수를 세 번 부정했던 베드로 사도 뺨치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자기방어적이고 자동반사적인 내 몸의 언어를 확인할 때마다, 내 몸에 새겨진 불안과 공포를 확인할 때마다. 물론 나는 그 사람에게 커밍아웃하고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래야 한다는 것 역시 나를 괴롭게 만든다. 소수자는 말하지 않으면 저절로 타자화 된다는데 말해야 하는 것도 타자화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타자화의 피꺼기다. 얼마나 말하면 내 몸에 새겨진 언어가 달아 없어질까. 얼마나 말하면 말 없이도 있는 그대로 살 수 있을까.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내가 이성애를 타자화 할 수나 있는지, 할 수 있다고 해도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왜 이성애자 타자화 해?" 라는 말에 내가 드는 생각은 어이쿠 타자화 조심해야지 아니라 이정도이다. 이성애자로서 타자화 당하는 느낌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능한 느낌이거나

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성애자이기도 하다. 이성애를 불신하고 이성애를 공박할 때 딱히 동성애자 정체성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의 이성애적인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이해체계와 표현들을 불신하고 그것이 내 욕망이 아니라고 느낀다. 그럼에도 내가 그것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성애 하는 양성애자가 동성애 안하는 이성애자의 무엇을 타자화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일까? 이성애적인 것들 중에는 진짜 이성애자들 예컨대 꼭 필요불가결한 것이 있어서 조롱하거나 범접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일까? 비이성애가 얼마나 특별한기에, 저 나쁜 비이성애 체계라도 갖추어서 이성애적인 체계 없이도 스스로를 설명하고 재생산할 수 있더라도 한가? 그 누구도 이성애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고로 누구나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의 내부자이다. 비이성애자도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이다. "왜 이성애자 타자화 해?" 가 아니라 "왜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의 이성애적인 것들을 타자화 해?" 라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 이성애자와 이성애적인 것은 분리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여하튼 나는 이성애적인 것들에 신물이 난다. 진짜 긍정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조롱하고 냉소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도 두렵지 않다.

물안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첫사랑

1. 한참이 지나서야, 난 우리의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정치적인 이야기이다.

초등학교 4학년 말, 전학 와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난 그 아이를 처음 만났다. 기가 참 썩어, 대 착어, 옛날부터 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붙어서 속상하게 하는 게 특기였나 봐. 너가 너네 맘에 드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어. 난 나와 달리 공책정리도 완벽했어! 그래서 모래 시험인데 내 공책 볼래? 하는 유치한 수작은 통하지 않아! 그래서 무작정 옆에 붙어서 널 놀려먹었지. 있잖아, 너 그거 알아? 니 별명 오리 있잖아. 너 입이 특 튀어나와서 진짜 오리 같아. 까하하하하하하... 너 몰랐지? 나의 생애 첫 번째 수작에 그 아이는 그렇게 대답했지. "한 번만 더 해봐"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 "오리!"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내 책상에 다가가서 내 가방을 들더니 내 가방을 그대로 뒤집기 시작하는 거야! 내 가방은 꾸역꾸역 토사물을 책상위에 쏟아냈고 만족스럽게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책상 위에 가방을 모두 얹은 너는 나를 쳐다봤지. 너무 놀란 나는 처참한 내 가방을 보고 그만 울어버렸고, 그 아이는 차갑게,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 준다고 분명히 경고 했잖아?" 하고 반을 나갔고, 난 바보처럼 반에 남아 엉엉 울고 있었지. 난 옛날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화내는 게 제일 무서워, 그렇지만, 그 뒤로 우리는 참 친하게 지냈었지. 아, 내 가방을 얻은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반해 버렸어! 는 아니지만 말이야. 뭔가 그렇게 격렬한 반응이 내가 탁 와 닿았던 것 같아.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 너 되게 웃겼던 것 같아. 무슨 초딩이 그랬니. 하지만 그때는 그런 너가 되게 성숙해 보이고 멋져 보였어. 그래, 이게 바로 콩깍지지! 그게 별 거겠어?

그러, 기억나? 너가 우리가 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돈 4만 5천원을 모아 들고 와서 나를 찾아온 걸? 너 나한테 커를 용품을 맞추자고 했었잖아.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 물어보니까 커를끼리 같은 물건을 쓰는 거래. 너랑 내가 커를이야? 그 때 난 처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인식의 전환이었지. 너는 한참 고민하던데,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친구' 끼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했고 난 둘이 같은 물건을 3년 내내 쓸 생각을 하니 쪽팔리다는 말로 거절했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이상하게 볼 까봐 겁이 났었어. 그런 일 흔하지 않잖아. 비밀반적이잖아. 난 실망한 표정으로 떠났는데, 그게 지금까지 참 미안하더라. 미안, 너도 여자가 나도 여자잖아? 난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애 었어. 어린 애가, 여자가 여자 끼리 '커를' 이 될 수 있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 너랑 나랑 둘이 손 꼭 잡고 내가 너보고 나두고 남자친구 사귀지 마라고 막 뭐라 하는게 사랑의 질투라는 생각을 해 봤겠어? 평생 수업이라고는 때분적이 없는 내가 너가 하고 싶다길래 같이 수업 패고 연못가 근처에서 3시간동안 석회수나 불고 있는게 데이트라는 생각을 해 봤겠어? 미안해. 개인적인 것도 정치적인 거라서, 난 그 때는 그런 관념 자체가 없었어. 왜냐면 모두가 그렇게 말하잖아. 데이트라는 건, 호감이 있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함께 설렘여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다. 커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다.

2.

중학생으로 맞는 처음의 봄이에요. 어릴 때는 평범해보이던 거리의 꽃들이 푸른 잎사귀들이 이제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요. 이게 어른들이 말하는 사춘기인가봐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의 초안 피부는 오늘 따라 더욱 예뻐요. 아무래도 전교에서 재가 제일 이쁘게 틀림없어요. 나는 확신해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저만 그러는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갠 귀티나고 귀엽게 생겼대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전부 아니에요. 우리 자기는 똑똑해요. 나는 전교 10등이나 겨우하지만 우리 자기는 전교 1등도 했어요! 진짜 끝내주지 않아요? 우리 자기는 무조건 찬양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나고 하나고요? 그야 친한 친구니까요. 재랑 나는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각별한 친구 사이였어요. 나는 이것 믿어 의심치 않죠.

그런데, 그 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각났어요. 햇살 좋은 어느 날, 점심시간의 한 중간이었어요. 우리학교 애들은 날씨가 좋으면 밥 먹고 건물 밖으로 나가 햇살을 쬐는게 일상 생활이었어요. 아이들 대부분이 광합성을 하고 있는데,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반이 되서 같이 얼굴 보는 시간은 점심 시간과 방과 후 밖에 없거든요. 그 한 분 한 초가 너무너무 나에게겐 소중한데, 그래서 난 그 아이 곁에 머물렀어요. 갠 복도에 서서 멍하니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교실 창가에 앉아서 그 아이의 옆 모습을 구경하다가 눈빛이 평소와 달리 좀 혼란스러워보여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며 걱정되서 다가갔어요.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나를 벽에 밀었어요. 등이 아픔에 가시기도 전에, 그 아이의 얼굴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이거 설마 키스하려는 건가? 아 아닐까야. 그, 그냥 보보 정도겠지.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입술이 내 입술에 점점 가까이 다가와요. 할려면 빨리 하지 뭐 이리 길어요. 갠 이미 눈도 감았어요. 개의 몸 내용이 코에 느껴져요. 이제 나도 눈을 감아야 하나요? 심장은 너무 뛰어서 미칠 것 같아요. 이러다 심장 마비로 쓰러질 것 같아요. 아, 이러다 진짜 하겠어. 안되요. 난 너무 무서워요. 뭔지 모르지만 너무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밀어냈어요. 그 아이가 멀리 밀려나가네요. 나를 한번 쳐다보니 아파, 라고 하고 또 뒤돌아서서 터벅터벅 어디로 걸어가요. 이름을 불러서 붙잡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우리는 어색해졌어요.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도시락을 들고 다시 개의 책상을 찾아갔더니 이제는 다른 애랑 같이 밥을 먹으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어요. 이제 입맛 없을 때 누가 김에 조갯살 말아서 내 입에 넣어주나요. 보고 싶은데, 이제 밥 먹을 때라도 안 보면 언제 보나요. 그럼 학교 끝나고는 같이 집에 갈까? 라고 물으니 자기가 요즘 바쁜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안된대요. 미안하대요. 웬지 모르지만 나는 무척 슬퍼요. 힘들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개랑 같이 못 노는 데 학교는 다녀서 뭐하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멀어진지 한달 쯤 되었나, 그 아이가 다시 도시락을 들고 이번에는 내 반으로 찾아왔어요. 그 동안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같이 밥을 먹었고, 학교가 끝난 후 같이 걸어가가기까지 했어요. 평소와 달리, 분식점에 들어가서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먹고 싶은대로 마음껏 먹으래요. 떡볶이에 오뎅에 라면에 튀김을 같이 나눠먹으니 5천원이 넘는 돈이 나왔어요. 그걸 다 사주래요. 다시 친하게 지냈어요.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난 이제 확신해요. 난 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친구 이상의 감정일꺼예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런 감정을 전혀 못 느껴요. 한 달 동안, 개랑 키스하는 꿈을 다섯 번은 꾸는 것 같아요. 꿈이지만 무척 좋았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얻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아이가 오히려 단편선을 가져와요. 이게 참 좋아서, 점심시간마다 같이 음독하고 싶다고 해요. 아니 난 이미 읽은건데? 전 거절하면서 우리 반에 있는 니체의 '파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를 같이 읽자고 해요. 웬지 몰나잡아요. 갠 10p를 읽더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이런 책을 권했으니 반성으로 편지를 쓰래요.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나고 하니까 그냥 제 편지를 받고 싶대요. 이해는 안되지만, 내 편지가 받고 싶다는데 전 문방구에서 가장 예쁜 편지지를 사서 날마다 편지를 써서 줬어요. 편지를 준 지 삼일째인가, 개가 저를 불러 진지하게 너는 글씨가 너무 나빠서 제 편지를 못 읽겠대요. 침울해하면서 그럼 쓰지 말까? 라고 했더니 그 말이 아니지 않냐며 자기가 쓴 편지를 자기 오른쪽 귀 옆에서 읽고 가래요. 아니, 내가 아무리 글씨를 못 쓰지만 다른 애들은 다 알아 보는데 왜 저렇게요? 아무튼 못 읽겠다니 옆에서 편지를 읽어줬어요. 읽다 보니 얼굴이 시뻘개지네요. 아, 그런데 갠 내 앞에서 웃고 있어요. 왜 그러죠. 편지 모르겠지만 좀 억울해요! 그래도 난 계속 편지를 읽어요. 해, 참 행복한 여름이에요.

3.

그 해 겨울은 매우 추웠다. 참 힘든 계절이었다. 중학교에서 처음 보낸 1년은 고됐다.

겨울의 어느 날이었을까. 편지가 왔다. 걸 봉투에는 그 아이의 이름이 써져있었다. 새해 편지였다. 안녕. ㅇㅇ아, 너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밤마다 고민했어. 라는 문구로 시작했다. 그 아이가 편지를 통해 말했다. 고민하였다고 하였다. 나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였다고 했다.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도 했다고 써져있었다. 왜 도대체 우리 사이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걸까? 당시 난 아무 것도 몰랐다.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는 느껴졌는데, 왜 괴로워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너무 많이 좋아하면 힘들다고 하면서 자기집 개를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도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써져있었다. 아니, 개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면 안되? 편지를 읽을 수록 내 기분은 미궁에 빠져들었다. 그 아이는, 지금 정말 너에게 진심을 담기 위해 아침마다 일어나 가장 마음이 맑아지는 시간에 편지를 조금씩 썼다면서, 나에게 고맙다고 하였다. 잘 지내고 중학교 2학년도 잘 보내. 이거 뭐야. 왜 꼭 헤어지는 사람처럼 구는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편지는 모르겠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 읽을 수록 눈물이 쏟아져왔다. 집에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바꿔주지 않아. 난 그 아이의 집은 몰라. 찾아갈 수도 없어. 뭐야. 꼭 헤어진 것 같아. 편지 모르겠지만 헤어진다는게 이런 거일꺼야. 앞으로 너랑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 삶을 너로 채우고 싶었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미칠 것 같았다.

답장을 보냈다.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처럼 꼭 이렇게 지내는 거 맞지?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았다. 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저 아이가 날 피한다. 거절한다. 거부한다. 난 거절당했다. 너가 날 좋아하긴 한거야? 알 수

없다고 느꼈다. 좋아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난 겨울 내내 서럽게 울었다. 슬픈 겨울이었다. 그 때 조금만 덜 울어도 아마 키가 2cm는 더 컸을지도 모른다. 눈물이 날 날마다 말진시켰다. 몰래 우는 거라, 더욱 힘들었다.

새해부터 난 이별당했다. 이런 15살따위.

4.

그 아이와 나의 이야기를 더 해야될까? 짧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헤어지고 만나고를 몇 번 반복하다 어느 날 그 아이는 훌쩍 전학을 갔다. 마지막날 찾아온 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차갑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난 그 이후로 그 아이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몇 번 시도한 연락은 거절당했다. 이제는 알 수 있어. 그 아이가 나의 첫사랑이었다는 걸. 우리는 서로 연애했다는 걸. 이걸, 매우 지루할 수도 있는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나의 경험을 구성하는 건, 그 아이와의 간지럽고 따뜻했던 추억이 내가 매우 오랫동안 더 이상 따뜻할 수 없다고 느꼈던 바로 그 지점은 매우 정치적이다. 사회가, 너무나도 이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가, 너무나 견고하게 그것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종교가 그것을 죄악시켰기 때문에, 어린 내가 선택할 수 있는건 '다 잊고 그냥 지금 널 좋아할래' 였고, 그 아이가 선택했던 것은 '도피' 였다. 그래, 어쩌면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닐 수도 있어. 못 보면 죽음만큼 사랑했다면 제도가 정치적인 것이 무슨 소용이겠어. 살기위해서라도 보겠지. 하지만, 보통은 꼭 죽음만큼 사랑해야 헤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 우리 정도면, 충분히 서로 좋아했잖아.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서로 헤어지게 했지. 그래 내가, 좀 바보같고 눈치없고 둔한면도 많았겠지. 그것도 문제였을 수 있어. 근데 갠 그걸 즐겼잖아.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나의 과거의 가장 개인적 경험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느낀다. 어린 시절의 나를 슬프게 하던 것은, 우리 둘 사이의 문제보다 제도화되고 관습화된 이념이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다. 나는, 운 좋게 이 공간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갈 사람들을 찾았어. 너는 그러고 있지? 당시의 우리 사이의 관계는 새롭게 얻어진 정보들과 감정들에 대해 재해석되고 다른 빛깔을 띤다. 지금 나는, 여전히 재해석중이다. 반박반박 빛나는 추억이 되어야 할 일이, 큰 트라우마와 짐이 되었던 과거의 인생의 무게들이 현재는 조금씩 덜어지는 것을 느낀다.

커플은 이성끼리의 결합. 성적 긴장은, 이성끼리의 전유물. 어린 시절의 동성과의 선택임은 성장과정의 한 때의 실수. 내가 이전에 강요받았던 해석의 틀과 달리 새로운 재해석의 가능성은 즐겁다. 그리고, 실수, 죄, 기피, 묻어아 될 기억으로 규정되었던 나의 과거의 경험들은 엄연했던 연애, 애정, 즐거움, 사랑 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그 재경험의 빛깔은 오랜시절 어둡했던 과거의 기억을 고맙도록 따뜻하게 재바꿈 해 준다. 이제는, 탈이성애중심주의를 만나서 조금은 말할 수 있다. 더 이상 마냥 슬프지는 않아.

나랑 산책해요, 멍멍!! _비글

후기

술 ▶ 나는 퀴어라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퀴어스러운 삶을 즐길 겁니다.
나는 그냥 나니까요.

도레미파 술술술!!!

삶 ▶ 이제는 모든 것에 익숙해져간다고 굳게 믿고 싶을 때마다 낮
게 끼어들던 잡음들은 사실은 낮은 잡음이 아니었다. 내가
듣기 싫어했을 뿐. 언제나 그랬듯이 지쳐가고 웃음짓고 모순
을 끌어안으면서 살아간다. 너희들의 웃음을 부수어버리고
싶었다. 너희들의 회피를 부수고 싶었다. 너희들의 책임의
대가를 묻고 따지고 싶었다. 모든 것을 뒤엎고 싶었다.

꿈 ▶ 얼마결에 시작해서 그럭저럭 끝났습니다.

나무 ▶ 행복해지자

울무 ▶ 나의 성은 움직인다.

나의 정체성도 세월 따라 상황 따라
흐르고 파도치고 춤추고...그렇게
파바박! 불꽃 튀는.
나의 성은 그렇게 하늘을 날고 있을지도.

별 ▶ 난데없는 밤샘에 오래간만의 새소리를 들었고
월요일의 총여실에는 백년만에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였고.

물안개 ▶ 말하면 실패하고 말하면 실패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성애중심주의는 이제 좀 별거 아니네요.

기린 ▶ 나는 중심에 포함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젠더규범을 따
라 하고 이성연애각본을 흉내 내는 까닭은 주변으로 내쳐짐
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더 솔직한, 그리고 가식 없는 사랑
을 하자. 그것이 나의 탈!이성애중심주의.

곰 ▶ 얼마결에 시작해서 그럭저럭 끝났습니다.

비글 ▶ 내가 누군지 알면 크게 다쳐요 (...)